

“빛나는 忠節 죽어서도 영화롭다”

노산 이은상의 「完譯 李忠武公全書」 전3권 나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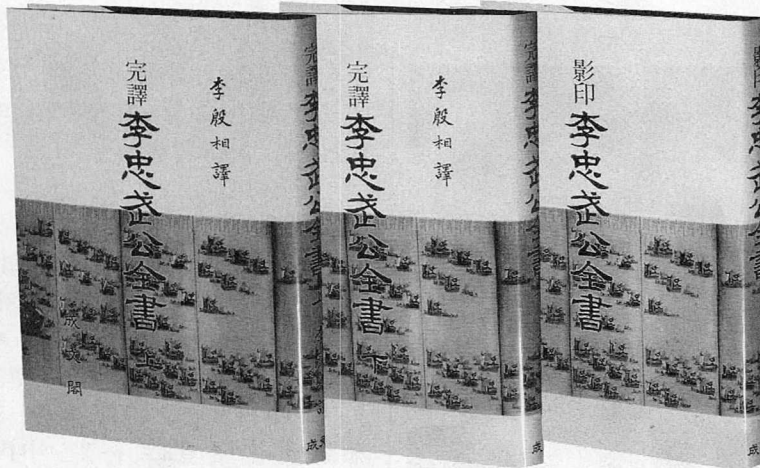
“...일곱해 난리 중에 이런 승첩 없었나니, 어허 뉘 공로나 그대 아니곤 못하리라. 하늘 뜻을 어이 알리 헤아리기 어려워라. 큰 일을 이루게 되자 몸이 문득 꺾이도다.

사랑롭다 그대여. 공로는 사직에 있고 빛나는 충성 절개 죽어도 영화롭다. 인생 한세상에 한번 죽음 못면하네. 죽을 데서 죽은 이로 그대같은 이 드물도다. 만리장성 무너지니 누구에게 의지할꼬. 나라여 복도 없다 하늘만 아득하네. 나는 그대 버렸건만 그댄 나를 안 버렸나니, 이승 저승 맺힌 원한 얼마나 슬플 손가.”

민족의 영웅 충무공 李舜臣장군이 남해 노량 앞바다에서 전사한 것은 미증유의 7년 전란이 막바지에 이르렀던 1598년 11월 19일. 당시 宣祖는 그의 죽음에 부친 祭文中에서 이렇게 애도하고 있다.

200년 전 王命으로 편찬한 全書

이충무공 자신의 저술과 그에 관한 모든 기록을 집대성한 「李忠武公全書」 완역본이 成文閣(대표 李聖雨)에 의해 출간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역자는 鷲山 李殷相. 이 「全書」는 원래 1960년 노산에 의해 國譯, 출판되었다. 그러나 史料수집이 불충분한데다 교정



과정에서 오류가 많이 발견되어 역자 스스로 폐간처분하고, 새로이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현지답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는 등 철저한 고증으로 다시 집필했는데, 노산이 82년 타계하는 바람에 그동안 묻혀 있다가 이번에 햇빛을 보게 되었다.

「李忠武公全書」는 충무공이 순국한지 200년 가까이 지난 1792년(정조 16년) 국왕의 특별한 배려로 규장각에서 편찬, 당시 예문관 검서였던 柳得恭의 교정으로 3년만인 1795년 9월에 전14권으로 간행되었다. 그뒤 복간본이 5~6종 나왔는데, 1934년 국내 유지들에 의해 다시 속편 2권이 추가되어 전16권으로 간행됐다. 이번의 완역본은 이 16권을 저본으

로 했다. 「完譯 李忠武公全書」는 번역본 상·하 2권과 원본影印 1권 등 전3권으로 구성됐다. 상권에는 宣祖가 충무공에게 내린 教書·諭書와 역대 국왕이 내려준 祭文을 비롯, 충무공의 詩에 후세인들이 화답한 작품들, 충무공이 진중에서 조정에 올린 狀啓, 그리고 유명한 「亂中日記」 전문이 수록됐다. 하권은 충무공의 행적과 각종 비문, 각처에 있는 사당의 記文, 역대 선현들이 그를 추모한 글들, 그리고 여러 문헌에 실려 있는 충무공에 관한 기록들, 충무공 막료들의 행적을 적은 同義錄 등을 번역해 수록했다. 그중에도 백미는 「亂中日記」와 狀啓. 충무

공의 친필일기로 너무도 유명한 「난중일기」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선조 25년) 1월부터 전사하기 이틀전인 1598년(선조 31년) 11월 17일까지의 陣中日기인데, 여기서는 친필초고본을 표준으로 삼아 번역했다. 특히 狀啓는 임진란 연구에 더없이 귀중한 문헌적 가치를 지니는데, 완역본에는 「全書」에 수록돼 있는 7편과 현충사에 보관되어 있는 7편을 모두 옮겨 실었다.

풍부한 참고자료 곁들여

번역문에는 해설과 함께 상세한 주석을 달았고, 이밖에 「선조실록」의 충무공과 원군에 대한 7차에 걸친 어전회의 기사, 충무공 집안의 「5세7忠 2孝」를 표창한 旌閭(아산군 소재)에 대한 이야기, 현충사를 새로 세우게 된 경위, 충무시의 충렬사·세병관에 대한 해설 등 「全書」에는 없는 참고자료들을 풍부하게 곁들임으로써 충무공과 관련된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꾸며졌다. 오늘의 급박한 정치·사회상황 속에서 자칫 망각되기 쉬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우국충정과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가 하는 교훈을 다시 일깨워 주는 책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일깨우는 교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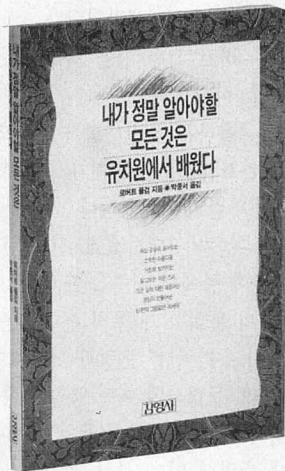
R.풀컴의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번역 출간

‘상식의 위대한 승리’를 반짝이는 재치로 역설하여, 지금 美전역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로버트 풀컴의 수필집 「내가 정말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박종서 옮김, 김영사)가 번역 출간됐다.

저자 풀컴은 포크송 가수, 바텐더, IBM 판매원을 거쳐 연합교회목사로 활동하고 있는 그야말로 미국의 ‘보통사람’. 그가 5년 전 시애틀의 한 유치원 입학식에서 행한 짧은 연설문 ‘내가...’는, 단행본에 수록돼 출판되기 전부터 그 구절들이 미국내에서 인구에 회자되었던 특이한 사연을 갖고 있다. 그의 유치원 연설을 우연히 듣게 되었던 한 상원의원이 크

게 감명을 받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그 내용을 낭독했는가 하면, 일간지의 인생상담란인 「디어 에비」에 자주 인용되었고, 드디어 한 어린이의 책가방 속에 들어 있던 연설문의 복사본이 저작권 중개인으로 일하던 학부모의 눈에 띄어 다른 글들과 함께 책으로 묶여 나오게 된 것이다.

로버트 풀컴이 말하는 삶의 진리는 대단히 간단하다. 그는 오랜만에 최고급 휘발유를 채워 놓은 자신의 낡은 차가 오히려 고급의 휘발유를 부담스러워 하며 더욱 털털거리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은 간결해야겠다는 영감을 얻었다고 털어 놓는다. 즉 고급지식을 너무



많이 집어 넣게 되면 부담에 짓눌려 인생의 교차로에서 계속 털털거리게 되며, 뜻있게 사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은 이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라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그가 제시하는 덕목들은 무엇이든 나누어 가져라, 정정당당하게 행동하라, 남을 때리지 말아라, 네가 어지럽힌 것은 네가 깨

끗이 치워라, 남의 물건에 손대지 마라 등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어머니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왔던 것들이다. 만약 모든 정치가들이 어린 시절에 배웠던 규칙에 따라 물건을 제 자리에 늘 도로 갖다놓고, 그들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스스로 치운다는 기본정책을 갖게 된다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리라는 것이 저자의 소박한 신념이다.

이 책에 수록돼 있는 수필들은 저자의 주변에서 일어난 평범한 일들을 적은 신변잡기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모든 것을 깔끔하게 치우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이웃과 자연주의자인 저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겨운 신경전, 최신식 컴퓨터보다는 주판에 보내는 저자의 따뜻한 애정, 범죄가 범람하는 뉴욕시에서 경험한 택시운전사들의 친절 등이 이 세상 곳곳에는 아직도 소박한 아름다움과 기쁨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잔잔하게 일깨워 준다.

—오애리 기자